



도서관 소식

9월 독서의 달 '그냥 좋아서(書)'
공원·도서관 등 곳곳 독서 행사

9월은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정한 독서의 달. 올해 독서의 달은 '그냥 좋아서(書)'를 주제로 제주시 도심공원에서,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잇따른다.

제주도 한라도서관은 이달 19~20일 제주시 신산공원 기념광장에서 '2026 책문화 동아리 축제'를 펼친다. 작가 강연 중심에서 벗어나 도내 독서동아리 10팀이 직접 참여해 토론을 펼치고 토론 내용을 공원 곳곳 스피커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 전시·체험 공간, 야외 도서관, 어린이 놀이 공간도 운영한다.

도서관 밖에서 책을 만날 수 있는 야외 행사와 작가와의 만남도 이어진다.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의 '2026 꿈바당 야외도서관' (12일 도서관 정원), 안덕산방도서관과 지역 작은책방이 함께하는 '지붕 없는 도서관' (26일 사계 지오단길 상점가), 중앙도서관의 소설가 은희경과 동화작가 박현숙 초청 행사 (19일) 등이다. 삼매봉도서관의 책 이야기와 필사 체험, 성산일출도서관의 꽃자왈 숲 강연과 씨앗 나눔, 동부도서관의 미술책 연계 강연과 압화 체험, 표선도서관의 어린이 제주어 교실 등 도서관별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한경도서관 다문화 이해 과정

제주시 한경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6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함께 읽으면 더 재미있는 그림책' (10월 4~25일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도서관 세계 요리 탐험대' (10월 4~25일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세계 문화 공예 체험' (10월 10~31일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등 3개 과정을 마련했다. 참가 신청은 이달 12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 공공도서관 누리집 이용.

국립오페라단 '박쥐' 들고 제주 온다



10월 제주를 찾는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박쥐'. 제주아트센터 제공

제주아트센터 재개관 기념
10월 2~3일 두 차례 공연
오페라 매력 친숙하게 경험
제주교향악단 연주 맡아

'알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라 '박쥐'. 1962년 창단한 국내 대표 오페라 전문 단체인 국립오페라단이 이 작품을 들고 제주를 찾는다. 오는 10월 2일 오후 7시30분, 10월 3일 오후 3시 제주아트센터.

이번 무대는 제주아트센터 재개관 기념 특별 공연으로 마련했다. 국립오페라단의 지역 공연으로 제

주도립 제주교향악단이 함께한다. 상징적이고 미니멀한 무대를 배경으로 오페라의 매력을 보다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쥐'는 줄무 근성의 바람둥이 아이젠슈타인 남작, 남편의 재력만 보고 결혼하지만 그를 경멸하며 살아가는 숙물 아내 로잘린데, 연에게 진출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하녀 아델레 등이 오를로프 스키 공작의 파티에 참석해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렸다. 신분을 숨긴 인물들의 거짓말과 오해가 대저택의 무도회 속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연출 김동일, 바리톤 김원, 소프라노 오예은·김유미, 테너 김성진 등이 출연한다. 연주는 박승유가 지휘하는 제주교향악단이 맡는다.

국립오페라단은 이 공연에 대해 "장면마다 멋들어지게 맞아떨어지는 감각적이고 익숙한 알츠와 풀카의 춤곡, 화려한 볼거리, 기분 좋은 사치스러움, 유쾌하고 흥겨운 줄거리는 오페라를 어렵게 생각하는 초심자 관객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람료는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입장권은 이달 8일 오후 2시부터 제주아트센터 누리집에서 예매할 수 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더 역동적이고 유쾌하게
클래식 발레 '돈키호테'

M발레단 내달 서귀포예당

스페인 문호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 이를 원작으로 한 클래식 발레가 서귀포 무대에 오른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이 '2026 공연예술 지역육성 지원 사업' 공모 선정작으로 펼치는 M발레단의 '돈키호테'다. 오는 10월 9일 오후 3시 대극장.

발레 '돈키호테'는 스페인 특유의 정열적인 춤과 화려한 무대, 유쾌한 이야기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다. M발레단은 이를 토대로 클래식 발레의 아름다움과 함께 누구나 쉽고 재

미 있게 즐길 수 있는 '돈키호테'를 선보인다.

이번 작품은 M발레단 고(故) 문병남 명예예술감독의 재안무를 통해 기존 3막을 2막으로 재구성했다. 작품의 흐름을 보다 간결하게 다듬고 유머러스한 연출을 더했다. 젊은 연인 키토리아와 바질리오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두 주인공을 돕는 조력자로서 돈키호테를 등장시켜 정겹고 진실된 로맨티스트의 면모를 보여준다.

작품이 전개되는 동안 투우사와 집시들이 만들어 내는 역동적인 움직임, 꿈속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숲의 장면 등을 만날 수 있다. 플라멩코·세기딜리아·판당고 등 스페인의 열정적 무대를 채울 예정이다.

관람료는 R석 3만원, A석 2만5000원, B석 2만원. 예매 개시는 이달 22일 오전 10시 서귀포E티켓.

진선희기자



M발레단의 '돈키호테'. 서귀포예술의전당 제공

“제주해녀들의 정신에 은퇴란 없다”

현을생 작가 해녀 사진전
70년대 중반 이후 작업들
오늘부터 해녀박물관서

1970년대 중반, 말단 공무원이었던 그에게 사진은 위안이자 출구였다. 공직 생활 내내 그의 곁에 카메라가 있었다. 그 여정에 해녀를 만났다. '해녀 삼촌'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 그들의 일상을 흑백 사진에 담았다.

서귀포시장을 지낸 현을생 작가. 그가 흑백 필름을 다시 꺼냈다. 제주도가 주최하는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사진전을 통해서다. 이달 8일부터 12월 6일까지 해녀박물관 1층.

이번 전시는 '아득한 흑백의 얼 굴들-나의 어머니 제주해녀'란 제목을 달았다. 사진을 통해 해녀들의 발인 제주 바다, 생의 기쁨과 아픔을 더불어 나누던 불턱, 두통약을 털어 넣으면서도 멈출 수 없던 물질 등 해녀들의 노동과 공동체 문화, 그 안에 담긴 삶의 기억을 들여다본다.

“제주 섬을 지키며 살아온 우리



현을생 해녀 사진전. 해녀박물관 제공

들의 어머니, 제주해녀들의 삶과 정신은 이 섬의 원동력입니다. 바다와 물을 오가며 그들만의 율음과 혼을 가슴속에 묻었던 위대한 제주해녀들의 정신에는 '은퇴'란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가의 말이다.

전시 기간 작가와의 토크 (20일), 시집 '해녀들'의 허영선 시인과 함께하는 이야기 (10월 14일)가 있다. 9월부터 11월까지 둘째·넷째 수요일에는 작가가 직접 작품 해설에 나선다.

진선희기자

거대한 생명력·숭고한 여성성
양종훈 갤러리 기획전 '극여극'
제주해녀와 히말라야의 만남

해수면 아래 가장 낮은 곳으로 몸을 던지는 제주해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솟은 히말라야. 제주 출신 다큐멘터리 사진가 양종훈 작가가 이 둘을 통해 거대한 생명력과 숭고한 여성성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전시를 연다. 이달 10일부터 양종훈 갤러리(제주시 애월읍 남읍로 4길 188-11).

양 작가는 30년 넘게 국내외 치열한 삶의 현장을 렌즈에 담아 왔다. 그 여정 속에 히말라야 차마고도의 서사를 기록했고 고향 제주의 혼과 해녀들의 생애사를 집대성한 사진집을 펴냈다.

이번 기획전의 제목은 '극여극(極與極): 제주해녀와 히말라야'. 두 존재가 지닌 모성적 가치와 생



양종훈의 제주해녀. 물질을 마친 새내기 해녀가 직접 잡은 문어를 머리 위에 올리는 장면이다. 양종훈 갤러리 제공

명력의 연대를 감각적인 시선으로 포착해 낸 사진들이 펼쳐진다. 작가가 천착해 온 두 개의 거대한 축을 하나의 공간에 결합해 선보이는 자리다.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5시.

진선희기자

승진
서기관

김호봉

부: (재)김두현, 모: 강복생

서기관(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재제주시삼달리향우회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대!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이코노믹'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28·구독 750-2314·서귀지사 732-5552

2026년 이어도문화의식제고사업

제12회
2026 이어도축제

제주인의 이상향 '이어도'와 미래세대의 한마당

2026년 9월 12일 (토) 12:00 - 20:00

연동 누웨마루거리 야외특설문대

주최 / 주관

후원

이어도청년즈림이

그노 제주특별자치도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